

완도 매력 담은 새 이름·콘텐츠로 단장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새로운 이름과 콘텐츠로 단장한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기존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완도 바다와 섬, 수산자원을 아우르는 해양 체험형 축제로 전면 개편하고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

먼저 청정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체험과 바다낚시,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공연과 야간 콘텐츠까지 완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축제 전반에 녹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머무르는 축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운영 방식도 정비해 완도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모전은 공정 방침인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축제에 접목하

군, 16일까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명칭 공모전 진행
바다·섬·수산자원 등 특색 투영...“해양 체험 축제로”

기 위해 마련됐으며, 축제의 정체성과 매력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명칭을 찾는다.

완도의 바다·섬·수산자원 등 지역 특색

을 담고, 해양 체험형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참신한 명칭이면 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며,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완도군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명칭은 상징성, 지역 대표성, 대중성, 독창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2명(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신 완도군수는 “완도의 매력이 담기

고 누구나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축제 명칭이 나오길 기대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새로운 이름과 콘텐츠로 축제를 단장해 관광객 유인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061-550-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진도, LA한인축제 참가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진도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국 시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된 ‘제53회 LA한인축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도군 4개 기업이 참가해 진도군을 대표하는 김과 전복을 비롯해, 각종 견어물과 울금 등 다양한 농수산식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며 홍보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진도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 업무협약도 잇따라 체결했다.

진도군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위드온나인’과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내 납품업체인 ‘함초롬’과도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 농수산식품이 미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진도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군은 ‘제53회 LA한인축제’에 참가, 아마존 사이트 ‘위드온나인’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목포를 방문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목포 유치’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강진, 10번째 밀키트 ‘한우소고기무국’ 출시

30년 내공 한우 깊은 맛 더해...집에서 간편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특화음식 밀키트와 사업을 통해 10번째 밀키트 제품인 ‘한우소고기무국’을 출시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 음식점의 우수한 메뉴를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밀키트 개발을 적극 지원, 최근 ‘한우소고기무국’ 출시로 4년간 총 10종의 밀키트를 선보이게 됐다.

앞서 2023년 ‘회춘탕’과 ‘연탄돼지불고기’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짬뽕어탕’ 2종과 ‘추어탕’, ‘장어볶음’을 출시했다. 2025년에는 ‘추어탕’ 2종과 ‘강

진 귀리강원장&돼지불고기’를 선보이는 등 지역 음식의 밀키트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한우소고기무국’은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메뉴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강진의 음식문화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번 제품에는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예촌식당’의 30년 국물요리 운영 경험이 담겼다. 국산 한우 양지와 무, 대파 등을 사용해 한우 특유의 깊은 감칠맛과 무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



했다. 제품은 500g씩 개별 포장된 3팩 1세트로 구성되어, 가격은 3만원이다. 필요한 양만 꺼내 조리할 수 있어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료 손질 없이 데워 먹기만 하면 든든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다. 신규 밀키트는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초록민음강진’(https://greengj.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목포, 국립 김산업진흥원 유치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목포를 방문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목포 유치’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산업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은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찾아 목포시 김산업 현황과 주요 육성정책을 청취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과 마른김거대소를 둘러봤다. 이후 김 가공업체를 방문해 현장 예로 사향을 청취하고 업체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양식면적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준의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국가 차원의 컨트론타워인 ‘국립 김산업진흥원’의 목포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가공·유통·수출기업과 연구·지원시설이 집적된 목포의 강점을 바탕으로 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도 건의했다.

시는 김 가공·수출기업과 김산업전문기관, 수산식품수출단지, 마른김 거대소 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해 목포를 대한민국 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 개인 맞춤형 관광코스 이동서비스 제공

12월까지 관광택시 시범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관광객의 편리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남관광택시를 시범운영한다.

해남관광택시는 개인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추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택시 2대가 투입되며, 이용요금은 3시간 6만원, 5시간 10만원, 8시간 15만원으로, 관광객은 전체 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관광택시는 해남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

하며, 운행시간에는 이동과 관광, 식사·대기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용 대상은 해남군 외 지역 거주 관광객으로, 이용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10월 1일 이후 발급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용 3일 전까지 해남개인택시지부 콜센터(061-536-3883)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이용객 만족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식 운영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남관광택시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해남의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

